

지역 소식통

정읍 농특산물, 단풍미인 소평물 입점업체 모집

정읍시는 지역 농가와 업체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풍미인소평물'에 신규 입점할 농가와 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입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다.

가공식품의 경우 정읍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주원료가 50% 이상 함유돼야 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와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입점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들은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단풍미인소평물에는 총 72개의 업체가 431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입점이 확정되면 택배비와 포장재 제작 지원, 할인 기획전 참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학교급식 안전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정읍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학교급식 식재료 가공·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교육지원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교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친환경 쌀 가공·공급업체 2곳과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14곳을 포함한 총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친환경 쌀 인증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 영업장 및 종사자의 위생 상태, 제품 표시사항의 적절함, 표기 여부 등 식재료의 가공과 공급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내장산 트레킹 관광상품 출시

정읍시, 트레킹 전문 승우여행사와 오색단풍 히든길 등 2개 코스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읍형 지역특화 관광상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읍시가 첫 걸음으로 대표자원인 내장산 테마 상품을 시범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가을철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더 넓은 계절로 확장하려는 목표로, 숨겨진 명소들을 트레킹하는 코스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구내의 트레킹 전문 여행사인 승우여행사와 협력해 내장산 트레킹 상품인 '내장산 히든로드'를 오는 11월까지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트레킹 코스는 두 가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 코스인 '오색단풍 히든길'은 추령 옛길을 따라 장군봉과 연지봉, 전망대를 지나 내장사에 이르는 약 3시간의 중급 난이도 코스다. 10월 30일과 11월 2·6일에 운영되며, 단풍철에도 비교적 한적한 내장산의 숨겨진 경관을 만끽할 수 있

다. 또 우화정과 내장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과 참참신종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코스인 '산천유수 히든길'은 솔타미마을을 출발해 동석계곡과 편백숲 내장산보각공원 등을 지나 내장호 물레길로 이어지는 약 2시간의 코스다. 남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하급 난이도의 트레킹 코스다.

두 코스 모두 서울에서 전용버스를 타고 정읍으로 이동해 일정을 소화하는 당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트레킹 외에도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화차 거리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장산은 매년 가을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지만 계

절적 편중이 심한 편"이라며 "이번 트레킹 상품이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기가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1만 명의 신규 관광객이 유치될 경우 약 10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승우여행사 이원근 대표는 "내장산은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지닌 트레킹 최적지"라며 "이번 히든로드 코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장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품 출시에 앞서 이화수 시장은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라는 말처럼 가을의 내장을 직접 걸으며 정읍의 가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지난 18일 오전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에서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공간"

고창군노인요양원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고창군이 지난 18일 오전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에서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고창군노인요양원 주관으로, 2009년 개관 이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애써온 모든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고창군노인요양원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고창군노인요양원의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입소자와 보호자, 종사자는 물론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의장과 군의원, 운영법인관계자,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예총 공연팀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

으로 기념행사는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환영사 △축사 △비전선포 및 인권보호 퀘기대회 △기념품 전달 △점심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전선포와 인권보호 퀘기대회를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군노인요양원을 만들어 오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노인요양원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상습 수해 구간 운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

부안군, 여름철 하천 범람 등 주민 영농애로와 생활불편 해소 기대

부안군은 상습적으로 수해 발생하는 보안면 및 졸포면 운흥천 일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약 3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하강천(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추진 중) 합류부로부터 3.7km를 제방 축조 및 보강 등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들의 안전한 마을 출입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교량 철거 및 9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양안에 제방도로 3m를 개설하여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월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11월 보안·졸포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흥천 상류부터 제방 연약지대처리 및 교

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생명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운흥천 일대 배수로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고자 한곡농어촌공사(부안지사)와 협의하여 배수개선사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신규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부안바로알기 성료

부안군에서는 2023년에 임용된 신규 공직자들을 포함해 70여 명 대상으로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 및 부안 바로알기 교육'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청렴과 자기 계발, 양성평등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직무윤리와 책임감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첫날 가졌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부안 바로알

기 현장학습이 진행되며, 석정문화관, 부안 청자 박물관 내소사, 졸포만 노을빛 정원 등 부안군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방문해 문화 해설사의 안내로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부안 청자 박물관에서 진행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내소사 전나무 숲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부안의 전통과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규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익현 군수는 "개인 개인의 성장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향후 부안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정읍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에서 중소도시 권역 2위를 차지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전국 평균인 72.4점을 크게 웃도는 79.87점을 기록했으며,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식생활 안전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 및 실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센터는 어린이 급식소 84곳을 대상으로 연 2~6회 순회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급식 지원과 함께 맞춤형 식단과 식생활 정보지를 매달 제공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을 배치해 170여 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식품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생마스크와 앞치마 등 홍보물품을 활용한 식생활 캠페인과 찾아오는 어린이집·유치원 영양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